

병자호란 직후(1637~1644) 朝淸 관계에서 ‘淸譯’의 존재

김 남 윤

1. 머리말
2. 淸譯과 淸學
3. 瀋陽의 조선 역관들
4. 청측 역관과 鄭命壽
5. 맺음말

1. 머리말

17세기 전반은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급변한 시기이다. 조선의 북서쪽에서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일어나 여진 집단들을 복속 통합하며 後金을 세웠다. 후금은 요동을 차지하고 중원을 넘보면서 조선을 공략하여 배후를 안정시키는 한편 전쟁에 필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조선에서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은 것에서 나아가 후금은 1636년 ‘大清’을 칭하면서 조선에 사대관계를 요구하였다. 조선은 청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에 응하면서 힘겹게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병자호란을 치르고 청에 굴복하였다. 이후로 청은 명에 대한 사대와 동일한 禮를 요구하면서 조선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부터 명이 무너지고 청이 북경에 입성하여 중원을 지배하게 되는 1644년까지 8년 동안은 모든 면에서 조선의 혼란과 고난의 시기였다. 청이 명을 공략하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조선은 연례적인 세폐와 잦은 使行에 부과되는 방물 외에도 징병과 군량, 각종 물자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청은 조선이 명과 비밀리에 통교하는 것을 막으려고 서해에 漢船이 출몰하는 일을 엄히 추궁하였다. 또 조선의 藩胡였던 忽刺溫을 정복하고 요동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조선으로 들어왔던 女眞 向化人과 漢人들에 대하여도 계속 무리한 쇄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은 중화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제를 정비하는 한편 고유의 전통을 지키면서 만주족과 몽골, 한족, 조선을 아우르는 제국임을 과시하고자 하였다.¹⁾

이 기간은 朝淸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시기였다. 언어가 다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섭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필수적인 것이 통역이다. 따라서 조청 관계에 대하여도 역관의 존재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청관계에서 만주어 통역을 맡은 이들은 ‘淸譯’으로 칭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청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병자호란 직후부터 청의 入關 무렵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 이 기간은 청과 맺은 화약에 따라 昭顯世子가 瀋陽에 가서 인질로 머물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심양에서 기록된 세자시강

1) 청이 入關 후 중원에 대한 지배를 확립해 가면서 조선과 청의 외교 관계는 전형적인 사대관계로 바뀌게 된다. 조청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한중관계사의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6 『清代 韓中關係의 一考察: 朝貢制度를 통하여 본 淸의 態度的 變遷에 대하여』, 『東亞文化的 比較史的 研究』, 一潮閣, 86-105면.

최소자, 1997 『명청시대 중·한관계사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연구: 朝淸交涉과 東亞三國貿易을 중심으로』, 혜안.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아르케.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최소자, 2005 『청과 조선』 혜안.

2) 이와 직접 관련된 연구로 다음의 논문이 있다.

白玉敬, 1992 『仁祖朝 淸의 譯官 鄭命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연구논집』22, 5-21면; 1996 『朝鮮後期 譯官의 政治的 動向研究: 明·靑交替期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72, 127-149면.

이 논문들은 淸譯을 淸의 역관으로 보고, 청역들이 정명수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중인으로서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려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역은 청의 역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의 청역들이 역관으로서 중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의 일기인 『瀋陽日記』³⁾와 宰臣들이 조정에 보고한 장계를 모은 『瀋陽狀啓』⁴⁾가 남아 있어 소현세자의 볼모살이와 조청 관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이 자료들에는 많은 역관의 이름이 나온다.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록은 매우 소략하지만 조선왕조실록과 『譯官上言謄錄』⁵⁾, 『通文館志』⁶⁾ 등의 사료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존재에 대하여 추적해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淸譯’의 출현과 淸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역이란 만주어 역관을 가리키는데, 조선에서는 만주어를 청어라고 하고 그 역관은 청역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女眞學 譯官이 아닌 청역의 출현과, 여진학을 청학이라고 하게 된 변화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또 당시 복잡했던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필요하였던 漢譯에 대하여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瀋陽에 있던 조선 역관들의 존재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기간은 소현세자가 인질로 있었고 양국 간에 빈번히 사신과 재자관이 오갔으며, 명을 공략하는 전투에 청의 명령에 따라 조선 군병이 직접 참전하기도 하였다. 이에 많은 통역이 필요하였고 청역과 함께 한역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청 관계에서 청측 역관이었던 이들도 조선에서는 ‘청역’이라고 하였다. 청측 역관들이 대체로 조선인 출신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청의 위세를 업고 조선에 끼친 폐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3) 『瀋陽日記』는 1637년(丁丑, 인조 15) 1월 30일부터 1644년(甲申, 인조 22) 8월 18일까지의 세자시강원일기이다. 『심양일기』 현존본의 체제와 내용에 대하여는 김남윤, 2006 『瀋陽日記와 昭顯世子の 볼모살이』, 『奎章閣』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5-60면 참조.

4) 『瀋陽狀啓』는 1637년(丁丑, 인조 15) 2월부터 1643년(癸未, 인조21) 12월 15일의 장계까지 수록되어 있다. 『심양장계』 현존본의 내용과 자료 가치에 대하여는 차문섭, 1999 『심양장계 해제』, 『국역 심양장계』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6면 참조.

5) 『譯官上言謄錄』 <奎 12963>. 이 자료는 禮曹 典客司에서 역관에 관한 상언을 등록한 것으로 1637~1692년의 상언 63건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漢·淸·倭學 역관의 충원과 적임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며 병자호란 이후 역관의 임무와 외교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6) 『통문관지』는 司譯院의 官署志로 사대교린 관계 자료를 정리 수록하여 1720년 간행되었다. 통문관지의 편찬과 간행, 체제와 내용에 대하여는 金允濟, 2006 『通文館志 解題』, 『통문관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37면 참조.

鄭命壽이다. 사실 『심양일기』와 『심양장계』에 보이는 역관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 정명수에 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정명수를 중심으로 청측 청역들의 존재와 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대청 관계에서 활동한 역관에 대하여는 주로 사행길에 밀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어온 듯하다. 이것은 청이 중원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고 중국화되면서 사대관계도 안정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초기 조청관계에서는 역관의 역할과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역을 중심으로 역관의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2. 淸譯과 淸學

조선에서 여진어 통역은 ‘胡譯’이라고 하였다.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크게 세력을 확대하면서 1616년 後金을 건국하자, 조선에서는 후금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고자 하였다. 광해군은 ‘전쟁 중에도 使者는 있어야 한다’고 간첩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진어에 능한 호역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후금 역시 일찍부터 공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조선의 사정을 정탐하고 있었다.⁷⁾

1619년 명의 요청에 따라 深河 전투에 참전한 姜弘立의 군대에는 鄉通事 출신의 河瑞國(河世國)이 조선군과 후금 사이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였다. 광해군은 후금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그를 신료들의 반대에도 司果에 등용하고 후금의 실정을 직접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하서국은 후금에 조선의 사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독으로 ‘胡書’(후금의 국서)를 가지고 서울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를 통해 조선은 만주족의 八旗 조직과 군병의 규모를 파악하게 되었다.⁸⁾ 그러나 하서국은 결국 후금에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金彦春은 경흥 출신으로 북도 통사였다. 후금에 있던 강홍립이 그를 통해

7) 한명기, 1999, 앞의 책, 224-235면 참조.

8) 하서국 등의 말에 따라 여진에는 8將이 있고 각기 거느리고 있는 長甲軍을 모두 합치면 9만이 된다고 여진의 군사력을 보고하면서, 도체찰사 박승중은 구체적 방어대책을 건의하였다(『광해군일기』 권166, 13년 6월 정유).

체찰부사 張晩에게 서찰을 보내기도 하였고⁹⁾ 화친을 청하는 호서에 대하여 광해군은 국서 대신 그를 보내 회보하게 하여 침략을 늦추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¹⁰⁾

광해군은 하서국의 사후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 죽은 것으로 은전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김언춘의 경우도 쌀과 베를 지급하고 그 처자를 돌봐주게 하였다. 그러나 조정 관료들은 하서국과 김언춘을 똑같이 음흉하고 간사한 인물로 보았다.¹¹⁾ 그것은 이들을 후금에서 활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7세기 초에 후금을 오가며 조선의 使者로 활동했던 胡譯들은 대개 여진과 접하며 살았던 북도 출신의 통사들이었다.¹²⁾

그런데 병자호란으로 청에 굴복하고 사대 관계를 맺은 이후로 조선과 청 사이에서 통역을 맡은 이들은 ‘淸譯’으로 불리게 되었다. 청역이란 만주어 역관으로 볼 수 있다. 청역은 청나라측 역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¹³⁾ 조선측 역관들도 청역으로 불렸다. 따라서 이 말은 조선의 입장에서 만주어 통역을 총칭하는 말이었다. 청나라측에서 활동한 통역들도 원래 출신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¹⁴⁾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진족이 스스로를 ‘滿洲’라고 칭하면서 그 언어도 만주어라고 하였을 것이다. 만주란 명칭은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우면서 1600년 무렵부터 국명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⁵⁾ 또 문자도 이전의 漢字를 빌어 표기하던 방식을 버리고 1599년에 몽골문자를 빌어 표기하는 滿洲字를 만들었다. 1632년(청 태종 6)에는 그 문자에 권점을 붙여 만주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한 有圈點滿洲

9) 『광해군일기』 권142, 11년 7월 무술.

10) 『광해군일기』 권142, 11년 7월 기해.

11) 『광해군일기』 권143, 11년 8월 기사.

12) 16세기 말 임진왜란에 누르하치가 조선을 지원하는 파병을 제의한 일을 계기로 조선은 여진의 세력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과 후금 사이의 교섭에서 역할을 하였던 호역의 존재에 대하여는 앞으로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13) 백옥경, 1992, 앞의 논문, 5면.

14) 뒤의 4장 참조.

15) ‘만주’의 유래는 불교의 문수신앙에 의한 것으로, 文殊師利(Manjusri의 음사) 보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마스이 츠네오(이진복 역), 2004 『대청제국』, 학민사, 50-51면 참조).

字를 완성하였다.¹⁶⁾ 이후 순치제 때에 만주어의 규범적 표기법이 완성되어 청에서는 이 문자가 계속 사용되었다.

청 초기에 만주어와 가까운 몽골어 문자를 가져와 자신들의 언어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그만큼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 태종은 이전의 금나라가 漢族의 풍속을 지나치게 따르다가 본국의 언어를 모두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냥을 통해 騎射를 연마하고 군사를 훈련하도록 경계하고 후세에도 조종의 제도로 삼아 계승하도록 하였다.¹⁷⁾ 그리고 모든 국사를 八王의 합의로 처리하라는 누르하치의 유명과 함께 만주족 고유의 八旗制는 청조 사회 운영의 기본이 되었다.

청 태종은 만주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金의 世宗을 본받아 文教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유가서를 비롯한 많은 중국 서적을 만주문으로 번역해내게 하고 1635년에는 송·요·금·원의 정사도 번역하게 하였다. 그리고 만주어로 된 책의 독서를 권유하였다.¹⁸⁾ 이러한 조치들은 1621년 요동지역을 차지하여 경제력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국가의 중심으로 삼게 된 일과 관련된다. 곧 만주족보다 훨씬 많은 漢人と 섞여 살게 되고 생활도 점차 농경문화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만주족과 고유문화를 보존하려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청 태종은 汗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국식 행정조직을 받아들여 6部를 설치하였다. 누르하치 때와 달리 漢人에 대한 착취를 완화하고 한인 투항자들을 우대하자 명의 지배관료 출신들이 다수 투항해 왔다. 1629년 文館을 설치하고 이들을 등용하여 서적 번역과 정사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고 1636년에는 이를 內三院(國史院·秘書院·弘文院)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만주족과 한족, 몽골을 포괄하는 다민족 국가로서 ‘대청’제국을 표방하면서 중국적 관료 국가체제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⁹⁾

1637년부터 매년 10월 1일 행한 頒曆에서 만주문과 몽골문, 한자로 된 책력을 나누어주고,²⁰⁾ 명을 공략하러 출병하면서 반포한 조서도 청어·몽어·한어

16) 金斗鉉, 1989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강좌중국사』4, 지식산업사, 151-152면 ; 姜信沆, 2000 『韓國의 譯學』, 서울대출판부, 110면 참조.

17) 『靑史稿』 권3, 太宗本紀2, 崇德 2년 4월 정유.

18) 徐炳國, 1974 『淸 太宗의 女眞民族 보존책 연구』, 『백산학보』16, 103-131면 참조.

19) 김두현, 앞의 논문, 153-158면 참조.

로 하였다.²¹⁾ 1639년 삼전도에 세워진 ‘대청황제공덕비’는 전면에 한문, 후면에 만주문과 몽골문으로 같은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1638년에 청은 조선에 이 비문 초안을 지어 보내라고 하여 漢人 학자 范文程에게 검토하게 하였다. 황제의 은덕을 상세히 밝히려는 등 청의 수정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는 비문을 고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장계에서 모든 글은 蒙書로 번역하여 황제에게 보이는데, 한문으로 지은 ‘글과 번역은 의미가 다르니’ 자구에 각별히 유의하여 비문을 수정할 것을 알리고 있다.²²⁾

심양에서는 1637년 7월에 청 황제가 소현세자에게 박사 2명을 보내 蒙書를 들고 와서 배우게 하였는데 세자가 먼저 연소한 종관에게 배우게 하고 자신은 차차 익히겠다고 답한 일이 있었다.²³⁾ 또 청에서 蒙書로 된 칙서를 보내고, 1639년 9월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의 책봉 고명을 몽서와 한문으로 하였다고 한다.²⁴⁾ 여기서 몽서는 만주어 책과 만주문자로 된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만주문자에 대하여 당시 조선의 문신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서로 기록한 듯하다.

그런데 滿洲라는 말은 당시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²⁵⁾ 만주어는 ‘淸語’라고 하였는데 병자호란 직후 청의 국호와 연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청어’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전에 여진어 또는 胡語라고 했던 말을 청어라고 하게 된 것은 이때의 만주어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632년 후금에 갔던 추신사 朴蘭莢이 의주로 돌아와 올린 치계를 보면 후금에서 용골대에게 말한 몇 가지 사항 가운데 ‘양국의 문자와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당신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翻譯(역학 교재)을 앞으로 역관들에게 학습시키고 싶으니 그 책을 얻었으면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²⁶⁾ 곧 기존의 여진학에

20) 『심양일기』 정축년(1637) 10월 1일.

21) 『심양장계』 무인년(1638) 9월 3일.

22) 『심양장계』 무인년 1월 26일. 『심양일기』 무인년 1월 21일과 25일에도 청의 비문 수정 요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23) 『심양일기』 정축년 7월 21일.

24) 『심양일기』 기묘년(1639) 9월 22일.

25) 만주라는 말은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6) 『인조실록』 권27, 10년 9월 임술.

따른 여진어 습득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진학은 조선초부터 교린의 대상이었던 여진과 교섭에 필요한 역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漢學, 蒙學, 倭學과 함께 4학의 하나로 司譯院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통문관지』에는 康熙 丁未 곧 1667년(현종 8)에 ‘여진학을 청학으로 개칭하였다’고²⁷⁾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역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칭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병자호란 직후 청과 자주 교섭하면서 만주어를 청어라고 한 것과 함께 女眞學도 淸學이라고 하게 되었을 것이다.

말이 달라서 청인과 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진학 교재를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 일은 역관 申繼黯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 전부터 사용해 온 여진학서 가운데 『巨化』·『仇難』·『八歲兒』·『小兒論』·『尙書』 등 5종을 만주문자로 옮겨 개편하였다.²⁸⁾ 기존의 여진학서로는 『千字文』과 『兵書』 등 14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전란을 겪은 뒤에 남아 있는 것이 위의 5종이었다고 한다.²⁹⁾ 신계암이 새로운 교재를 저술한 사정은 『譯官上言臚錄』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사역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었다. “女眞學을 傳習하는 일은 지금 타학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전부터 내려온 番書는 어느 시대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청인이 보고 괴이하게 여기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은 前汗이 지은 것인데 음은 淸音이고 글자는 蒙書와 대략 비슷하나 點劃이 실로 다르니 밝게 아는 자가 전혀 없어 피차 서로 만날 때 통할 길이 없습니다. 도제조 吳允謙이 때마침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고 다방면으로 권장하고, 본학 중 재주 있는 신계암을 춘추 信使의 行에 연이어 차송하여 그로 하여금 청인과 더불어 왕래하며 물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語音이 정밀하고 능숙해진 뒤에 그 글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신계암이 오로지 연구에 뜻을 두어 지금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닥이 잡혀, 전해져 온 책 가운데 이른바 巨化·仇難·八歲兒·小兒論·尙書 등 5책을 淸書로 寫出하고 淸書 옆에 註를 달았습니다. 작년 칙사 때 따라온 청인이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로써 그것이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국 사람이 비록 淸語를 알아도 淸書에 이르면 아는 자가 없으니 신계암의 정성

27) 『통문관지』 권1, 沿革 官制.

또 乾隆 乙酉 곧 1765년(영조 4)에 ‘청학의 서열이 蒙學 위에 있다’고 되어 있다. 곧 청학의 서열은 1765년 이전까지 4학 가운데 마지막이었다.

28) 『통문관지』 권7, 人物 申繼黯. 『燃藜室記述』 별집, 제5권 事大典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29) 『통문관지』 권1, 勸獎 科擧.

을 다한 학습이 없었다면 어찌 이 전에 없던 책을 본학 강독의 자료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은 지극히 가상합니다. 각별히 논상하고 타인에게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⁰⁾³⁰⁾

이것은 1639년(인조 17)에 사역원에서 아뢴 내용이다. 도제조 오윤겸이 10년 전에 신계암을 청에 보냈다고 하였는데, 사역원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직하는 자리이며 오윤겸이 영의정에 오른 것은 1628년 11월이었다. 따라서 신계암이 청에 간 것은 1629년부터였다. 몽골문자를 빌어 만주어를 표기하는 만주자는 前汗, 곧 청 태조 누르하치 때에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점획이 다르다고 한 것은 글자에 권점을 찍어 표기하는 유권점만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계암은 당시 청의 수도인 심양에 가서 만주어와 함께 1632년 만들어진 새로운 만주자 표기법을 익혔던 것이다. 그가 유권점만주자로 개편한 5종의 책 가운데 『팔세아』와 『소아론』은 1683년 이후에도 『新翻老乞大』·『三譯總解』와 함께 청학 교재로 사용되었다.³¹⁾

청역을 임명한 일은 1637년 시작되었다. 『통문관지』에 ‘淸學 新遞兒 10員은 정축년(1637, 인조 15) 이후에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贖還한 사람 중에서 청나라 말을 잘 해득하는 자 8인을 골라서 備局에 소속시키고 이들을 淸譯이라고 불렀다. 司果 1자리와 司勇 7자리가 있는데, 매 사신 행차 때마다 응당 이에 붙여서 임명하여 보낸다. 1인은 청나라의 관문을 출입할 적에 饋物 등을 支供하는 일을 관리하고, 또 칙사를 접견할 때에 御前通事를 수행한다’는 기록이 있다.³²⁾

司果와 司勇은 각각 정6품과 정9품으로 五衛에 속한 軍職이었다. 사역원의 직제는 17세기 초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는데 祿官 遞兒職을 衛職으로 돌리고 자리를 줄이는 조치가 시행되었다가 1643년에 다시 정비된다. 이것은 전란을 거친 후의 궁핍한 재정 형편에서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해석되었다.³³⁾

30) 『譯官上言謄錄』 기묘년 5월 11일.

31) 『受教輯錄』에 의하면 1683년 이후로 청학서는 사역원에서 새로 편찬한 『新翻老乞大』·『三譯總解』와 신계암이 개정한 『八歲兒』·『小兒論』 등 4종의 책이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鄭光·韓相權, 1985 「司譯院과 司譯院 譯學書의 變遷 研究」, 『德成女大論文集』14, 53-54면 참조).

32) 『통문관지』 권1 沿革 外任.

1637년 속환인 가운데 淸語를 잘하는 자를 골라서 청역으로 하고 이들을 위해 하급 위직인 사과와 사용을 8자리 증설한 것이다. 청과 화약을 맺고 사대관계가 시작되면서 시급히 청역이 필요하였는데 속환인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사역원의 역학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듯하다.³⁴⁾ 속환인이란 청에 붙잡혀간 被擄人 가운데 몸값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청은 정묘호란 때부터 서북지방의 조선인들을 붙잡아가서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³⁵⁾ 조선은 피로인의 귀환을 양국 간의 교섭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속환하는 수밖에 없었다. 청의 八旗制에 따라 각 旗(固山)에서 획득한 포로는 그 기의 소유물로 황제도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청에 수년씩 머물렀기 때문에 청어에 능하였다. 대체로 서북 지방 출신이며 신분상으로는 하층민인 경우가 많았다.

사역원의 外任으로는 경국대전 당시부터 譯學兼軍官이 9員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함경감영·南兵營·義州·渭原·楚山·碧潼·昌城·滿浦에 각각 1원을 두어 譯生을 가르치고 淸人들을 접대하도록 하였고, 모두 淸學을 임명하여 보낸다고 하였다.³⁶⁾ 그리고 여진학 역학생은 사역원에 20명, 북청 10명, 의주·창성·이산(초산)·벽동·만포·위원에 각 5명을 두었다.³⁷⁾

또 녹관직 外任으로 해주와 선천·안주·의주에 譯學訓導를 설치하고 漢學 출신 참서관을 임명하여 보냈는데 칙사의 영접과 연향 및 지방에서 실시하는 역과 초시를 위한 것이었다. 한학 역학생도 평양·의주·황주에 각각 30명이 있었다.³⁸⁾ 해주와 선천에는 1621년(광해군 13) 이후에 한학훈도를 1인씩 임명

33) 정광·한상권, 앞의 논문, 3-19면 참조.

34) 1643년에 사역원에서 아뢴 내용에 신진 무리가 학습에 뜻이 없고, 명에 입조하는 길이 끊긴 뒤로는 일이 있어도 元額이 많지 않아 두루 돌아가지 못하니 4학의 수백인 역생들이 살 길이 없다고 하면서 변통하는 조치를 청하였다(『역관상인등록』 계미년 5월 20일).

35) 여진과 접한 변경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후금이 일어나면서 붙잡혀가거나 다른 경로로 후금에 들어가 剃髮하고 팔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 정묘호란 때 후금군이 본토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그의 군대에 편입시켰다는 기록도 전한다(『연려실기술』 제25권, 인조조고사본말).

36) 『통문관지』 권1, 沿革 外任. 그러나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는다(정광·한상권 앞의 논문, 7면 재인용).

37) 『經國大典』 권3, 禮典 生徒, 『續大典』(1741)에서 理山이 楚山으로 바뀐다.

하여 보냈는데 해로로 명에 입조하게 되면서 칙사 영접과 표류한 漢船의 사정을 알아보고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⁸⁾ 의주에는 청학 신체를 임명하여 보냈다. 이것은 청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중강개시를 위하여 1646년(인조 24)에 겸군관을 훈도로 올려 임명하여 보낸 것이었다.

해주와 선천의 한학은 1621년 후금이 요동을 차지하게 되자 육로가 끊겨 명과 해로로 통교하게 되면서 필요하였다. 이 지역에 한학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었다. 후금이 요동을 차지하고 漢人들을 억압하자⁴⁰⁾ 많은 한인들이 조선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또 명의 도독 毛文龍과 그 무리가 椴島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명 조정을 대신하여 조선과 통교하기도 하였다. 당시 의주와 평안, 황해도에서 청역과 한역이 필요하다며 역관 차송을 요청했던 장계들의 내용에서 이러한 사정을 볼 수 있다.

의주의 경우는 1637년 부윤 林慶業이 ‘의주부는 나라의 문호가 되는 곳인데 漢人을 지원할 일이 매우 많고 한인이 많으니 한학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며 한학 역관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⁴¹⁾ 또 청인이 무상으로 왕래하는데 말하는 자가 없으니 서울에 있는 淸譯의 수가 적어 나누어 보내기 어려우면 사역원 여진학 가운데 청어를 좀 해득하는 자를 택해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⁴²⁾ 평안병사도 漢船의 내왕에 한역이 꼭 필요하니 차정하여 보내달라는 장계를 올리고 있다.⁴³⁾ 황해감사는 지난해 칙사가 행차했을 때 해주역학 景正哲이 주선한 일이 많고 능숙하다며 그의 仍任을 청하였다.⁴⁴⁾ 그 뒤에는 일이 많은데 譯舌의 주선이 없이는 안 된다며 자신이 아는 역관 崔慶長을 추천하며 그를 파견해주도록 청하였다.⁴⁵⁾ 1640년 평안병사 임경업은 청의 명령에 따라 舟師

38) 『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

39) 『통문관지』 권1, 연혁 외임.

40) 요동을 장악한 후금은 漢人을 각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한인에게 노동력과 곡물, 병역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배정책과 만주족의 착취, 토착 한인과 후금에 귀속한 한인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한인들은 도망하였다. 또 1625년 심양으로 천도하면서 후금에 저항한 한인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였다(김두현, 앞의 논문, 141-179면 참조).

41) 『역관상언등록』 정축년 12월 초2일.

42) 『역관상언등록』 정축년 12월 초5일.

43) 『역관상언등록』 무인년 정월 17일.

44) 『역관상언등록』 기묘년 2월 초2일.

上將으로서 군병을 이끌고 가야 했는데,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한역이 없으면 안 되니 당상역관 李賢男, 당하역관 李海壽 등을 급히 보내달라는 장계를 보냈다.⁴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637년 청과 사대관계를 맺으면서 여진어는 청어로 불리고 여진학은 청학으로 바뀌게 되었다. 역학자 신계암은 청에 가서 새로 만주어와 유권점만주자 표기법을 배워 새로운 청학 교재를 마련하였다. 청과 교섭에 시급하게 청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속환인 가운데 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채용하였다. 그리고 명이 존속하고 있고 가도에 모문룡의 군영이 있는 상황에서 명과 해로로 통교하고, 또 청에서 넘어온 漢人이 많았던 사정상 의주와 평안, 황해도에서는 청역과 함께 한역도 필요하였다.

3. 瀋陽의 조선 역관들

청은 1637년부터 입관하게 되는 1644년까지 본격적으로 명을 공략하는 전쟁을 벌이며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조선을 압박하였다. 청은 조선에서 식량과 배 등 각종 물품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군병, 군선, 군량도 동원하고자 하였다. 병자호란으로 형제관계에서 사대관계로 바꾼 청은, 조선이 명에 바친 事大의 예에 따라 사대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은 일찍부터 명과 조선에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 관계의 성격을 잘 알고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폐를 비롯한 연례 사행 외에도 사은사·진주사 등 각종 사행이 자주 있었고 咨文을 청에 가져다 바치고 回咨를 받아가는 일도 많았다.

청과 맺은 화약 조건에 따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부부, 삼공 육경의 質子들은 당시 청의 수도인 盛京(瀋陽)에서 볼모살이를 하게 되었다. 소현세자가 머물렀던 곳을 瀋陽館이라고 하였는데 심양관은 청에 들어온 사신과 세폐, 공물, 군대와 군량 등 조선에서 청에 들어온 모든 사람과 물품이 거쳐 가는 곳이 되었다. 소현세자는 볼모살이를 하면서 청과 조선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청 황제의 명을 받들고, 황제가 초청하는 궁중 연회와 사

45) 『역관상언등록』 기묘년 12월 13일.

46) 『역관상언등록』 경진년 2월 16일.

냥, 명을 공략하는 전쟁에도 참전해야 했다. 또 조선의 일을 전담한 龍骨大·馬夫大 및 청의 역관 정명수 등과 대면하여 被擄人 속환과 走回人·向化人의 쇄환, 징병과 군량 문제에 대한 청의 요구와 힐책을 듣고 대처해야 하였다.⁴⁷⁾

청의 요구와 명령을 듣고 조선에 전달하는 일, 청에 바칠 세폐 방물과 각종 물품 등을 들여와 아문에 탈 없이 바치는 일, 그리고 청 황제나 諸王, 용골대와 마부대, 정명수 등의 개인적 요구에 대응하는 일에 모두 역관이 필요하였다. 심양관에 딸린 인원도 500명이 넘었는데⁴⁸⁾ 이들이 심양에서 생활하고 조선을 오가는 일에도 역관이 필요하였다.

조선에서는 청 조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리 탐지하여 대비하고자 하였다. 황제의 성절이나 황실의 장례 등 행사에 날짜와 격식을 알아내 예를 갖추어 사신을 보내고 방물이나 부물 등 물품을 보내야 했다. 청에서 장례에 쓸 종이와 단목 등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히 조달하여 보내야 했다. 칙사가 나올 경우도 그 목적과 명단, 수행원 등을 미리 탐문하여 연로 각 고을과 서울에서 대비하려고 하였다. 또 명을 공략하는 전쟁에 대한 소식, 명과 청의 화의 교섭 소식 등도 정탐하고자 하였다.

곧 양국 관계의 모든 일에 역관이 필요하였다. 역관은 심양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행을 수행하여 들어온 경우, 심양관에 필요한 물품이나 청에서 요구한 물품 등을 바치기 위해 잠시 심양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심양관에 소속된 역관들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 『심양일기』와 『심양장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643년 사역원에서 아뢴 내용 가운데 ‘瀋中 陪從譯官 4인’이라는 구절이 있어⁴⁹⁾ 원래 배정된 인원은 4명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역관이 필요했다. 심양관의 역관들은 시장원 관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차면 교체되어 조선으로 돌아갔다. 병이라든가 奔喪 등 사정이 있어 갑자기 귀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사행의 원역으로 들어온 역관을 그대로 머물게 하거나 禁軍 출신으로

47) 심양에서 소현세자의 생활과 역할에 대하여는 김남윤, 앞의 논문, 52-60면 및 金龍德, 1964 『昭顯世子研究』, 『史學研究』18(1977 『朝鮮後期思想史研究』, 을유문화사, 재수록) 참조.

48) 김남윤, 앞의 논문, 52면 참조.

49) 『역관상언등록』 계미년 5월 20일.

만주어에 능한 자에게 통역을 맡기기도 하였다.

『심양일기』에는 역관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지만 심양관 출입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심양장계』는 당시 조청관계에서 일어난 일과 청조의 동향 등을 탐지하여 그때그때 보고한 장계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 가운데 역관과 관계된 사실도 꽤 찾아볼 수 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 머물렀던 만 8년 동안 『심양일기』와 『심양장계』에 역관으로 나타난 이름들을 모두 모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심양에서 활동한 조선 역관

연도	역관 이름
1637	玄項 趙孝信 朴庚生 李膺 崔泰慶 金命吉 權仁祿 朴士明 崔得男 金景信 金希參 鄭伯鸞
1638	권인록 金命吉 金敬信 崔得男 安大起 任巨正 趙孝信 李亨(馨)長 金延壽 康(姜)海壽 周大仁 정백란 김희삼 李信儉
1639	김경신 김연수 정백란 이형장 朴信言 김명길 申祥福 金成龍 崔崙 안대기 金鳳山 조효신 韓後信 李山 朴仁原
1640	申尙福 韓瑗 李化龍 韓仁祿 조효신 김명길 이형장 金敬信 金俊吉 奇暹 申繼黠 邊誠吉 朴璇 朴成男 李緝 崔莫同
1641	李化龍 김명길 신계암 崔興男 張禮忠 徐尙賢 金貴仁 韓之彦 이형장 金應信 朴庚生 金克仁 梁孝元 신상복 崔仁傑 박상직 李楫 李仁國
1642	서상현 이형장 이신검 이화룡 이집 金應信 朱命生 조효신 梁孝元 崔愛立, 李新德 金貴仁 安宗敏 崔仁傑 朴尙直 김봉산 김연수 朱明生
1643	조효신 김응신 신계암 신상복 서상현 이형장 양효원 박경생, 이신검 최인걸 朴成男 朴璇 李莆 李黠 朴廷植 金希益 庾仲吉 黃聖南
1644	서상현 李肅 이보 이신검 변성길 조효신 김연수 尹孝金 鄭忠一 이신검 이형장 韓之彦 鄭忠一 박경생 신계암 양효원 이집 최인걸 박성남 宋明生 韓受男

<표 1>에서 보면 역관은 해마다 12명에서 20명 정도이며 총 54명의 이름이 파악된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간혹 上通事·小通事·한역·청역 등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 구분해 살펴보기는 어렵다.

이들 가운데 역과 출신은 淸學에 黃聖南(1603 계묘식년기), 申繼黯(1619 기미증광시), 李化龍(1635 을해증광시), 漢學에 韓瑗(1606 병오증광시), 張禮忠(1609 기유증광시), 周大仁(1615 을묘식년시), 玄頊(1616 병자증광시), 朴尙直(1616 병자증광시), 金敬信(1623 계해증광시), 韓之彦(1627 정묘식년시), 徐尙賢(1630 경오식년시), 李菡(1635 을해증광시) 등⁵⁰⁾ 청학 3명, 한학 9명이다. 따라서 한학은 대체로 역과 출신 역관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이외에 박경생·이응·김준길·박인원도 한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청역인 권인록은 온성, 안대기는 慶源, 김경신은 鐘城, 김명길·김희삼·정백란은 慶興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다. 앞 장에서 언급한 속환인을 청역으로 임용했던 것과 함께 북도 출신으로 청어를 해득한 이들이 청역이 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역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漢譯에 대하여는 1637년 장계에 ‘대소사를 응답하는데 한인이 태반이라 漢學 역관으로 글을 알고 말을 잘하는 자를 정선하여 빨리 들여보내줄’ 것을 청한 사실을 들 수 있다.⁵¹⁾ 요동지역에는 본디 漢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청 태종의 한인 지배층에 대한 우대와 문관의 설치에 따라 文翰의 임무는 한인이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조선에 관한 임무를 맡은 인물이 앞에 언급한 范文程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內秘書院 대학사로서 청 태종이 소현세자나 봉림, 인평대군을 접견할 때도 동석하였고⁵²⁾ 황제의 명이나 칙서를 세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博氏 몇 명과 함께 와서 행하였던 것으로 자주 나타난다.⁵³⁾ 또 그가 일본의 사정과 풍속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 소현세자가 대답해준 일도 있었다.⁵⁴⁾ 이러한 경우는 한역이 통역을 담당하였다.

또 몽골어 역관도 있었다. 1637년의 장계에서 김경신과 김희삼은 禁軍으로 당시 사정에 익숙하고 蒙語에도 능숙하니 심양에 들여보내주기를 청하였고,

50) 『譯科榜目』 <奎 12564> 권1 참조.

51)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52) 『심양일기』 경진년(1640) 2월 ; 『심양장계』 경진년 2월 25일.

53) 『심양장계』 무인년(1638) 1월 7일, 경진년 6월 21일과 7월 6일.

54) 『심양장계』 임오년(1642) 4월 2일. 청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선을 통해 일본에 대하여 탐지하고자 했다.

경흥 校生 鄭伯鸞은 蒙譯으로 평안도에 들어왔기에 데려왔다고 전한다.⁵⁵⁾ 정백란은 몽역이고 김경신은 한역으로서 몽어에도 능하였다. 전란 후 조선에 牛疫이 심하여 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자 몽골에서 소를 사기 위하여 成鈇이 심양에 왔는데,⁵⁶⁾ 그는 일본에서 들여온 枝三·南草를 가지고 가서 소를 매입하였다.⁵⁷⁾ 이에 조효신·김경신·정백란·이형장이 역관으로 동행하였다. 일을 마친 후 조효신과 김경신은 곧 조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형장은 심양관에 사환이 부족하다고 머물러두게 하였다.⁵⁸⁾

그런데 이 일에 八旗에서 각각 사람을 차출하여 몽고땅으로 보내면서 각각 역관 1명씩을 보내라고 심양관에 청하였다.⁵⁹⁾ 조선에 칙사가 나갈 때 그 수행원도 팔기에서 각각 家丁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 가기도 하였다.⁶⁰⁾ 西行에 조선 군병을 징발하여 참전하게 했을 때에도 청의 군령을 받아서 조선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역관이 하였는데 각각 팔기에 배속하여 연락하도록 하였다.⁶¹⁾ 그래서 서행에는 8명 이상의 역관이 필요했고 청역과 한역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밖에 용골대가 황제의 명으로 旗竹을 급히 구하자 역관 安大起를 차정하여 關文을 보냈고,⁶²⁾ 영의정 이홍주의 질자 이안방이 부친상을 당하여 나가는데 호행하는 일로 역관 任巨正을 함께 보냈다.⁶³⁾

다음으로 심양에 있는 동안 역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추적해볼 수 있는 경우를 개인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55)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56) 『심양일기』 무인년 2월 11일.

57) 성익의 몽골지역 여정과 質牛郎廳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는 李龍範, 1965 『成鈇의 蒙古牛 質入과 枝三·南草』, 『진단학보』28(1989 『韓滿交流史研究』, 동화출판공사 재수록, 345-390면) 참조.

58) 『심양장계』 무인년 4월 17일, 4월 29일, 5월 24일.

59) 『심양장계』 무인년 2월 18일.

60) 『심양장계』 기묘년 5월 18일. 칙사행의 인원에 대하여, 수행하는 頭目은 八旗에서 각각 10인을 보내고 칙사 3인의 家丁은 모두 20인이므로 총 1백 명이라고 보고하였다.

61) 『심양일기』 갑신년(1644) 『西行日記』, 4월 9일.

62) 『심양일기』 무인년 6월 21일.

63) 『심양일기』 무인년 8월 10일.

먼저 申繼黯은 앞 장에서 보았듯이 1629년부터 심양을 오가며 만주어와 문자를 공부하여 청학 교재를 개편하였다. 후금에 붙잡혀간 피로인의 속환에 힘써⁶⁴⁾ 참서관에 오르고 후일 첨지중추부사에까지 이르렀다.⁶⁵⁾ 1641년 금주위 전투에 소현세자를 수행하여 이형장·서상현 등과 함께 종군하였고, 1644년 청이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입성할 때에도 구왕 도르곤을 따라 참전했던 세자의 서행에 박경생 등 8명의 역관과 함께 종군하였다. 1643년에 황제의 명으로 정명수가 와서 ‘大鏡眞言’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물어 세자와 재신이 ‘원나라 때 개성 화장사에 온 승려가 전하였고 사악을 물리치는’ 주문이라고 답해주니 그 내용을 써달라고 하였다. 뒤에 다시 아문에서 신계암을 불러 그것을 번역하게 한 뒤 몽서로 베껴 바쳤다고 한다.⁶⁶⁾ 1643년에 청의 팔왕과 우진왕이 전투에서 회군한 소식을 박경생과 함께 아문에 가서 범문정과 皮牌博氏에게 탐문하기도 하였다.⁶⁷⁾

그런데 1637년 재신의 장계에는 그를 蒙學이라고 했고, 심양에 들여보내라는 소현세자의 하령이 있었지만 전에 사은사가 들어왔을 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많이 했으므로 들여보내지 말도록 건의한 사실을 볼 수 있다.⁶⁸⁾ 1641년에도 그가 함부로 칙사가 나간다는 거짓 소식을 의주부윤에게 전하고 그것을 관찰사가 치계하는 바람에 조정에서 접반사를 차출한 일이 있었다. 이 소동에 대하여 사신이 나간다는 기별이 있으면 아문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청역들을 통해 그 허실을 탐지하여 치계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다.⁶⁹⁾ 그는 1644년 세자의 서행을 수행하여 북경까지 갔다 와서 8월 4일 심양에서 사망하였음이 『심양일기』에 밝혀져 있다.⁷⁰⁾

朴庚生은 한인을 응대하기 위한 한학으로 심양에 왔다. 역관으로 처음에는

64) 『大東野乘』 『凝川日錄』4 기사년(1629) 9월 22일.

65) 『통문관지』 권7, 인물.

66) 『심양장계』 계미년(1643) 6월 27일. 이 일은 1642년 경 청이 티벳과 관계를 맺으며 라마승이 왔다간 일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67) 『심양장계』 계미년 10월 12일, 11월 10일.

68)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69) 『심양장계』 1641년 8월 4일.

70) 『심양일기』 갑신년 8월 4일. 『역과방목』과 『심양일기』 기록에서 그의 생몰년이 1600~1644년임을 알 수 있다.

女眞學에 속하였는데, 명나라 장수의 차비관으로 차출되어 椴島에 들어가 중국 남북의 말을 모두 익혔으며 문필에 능하고 諸子百家에 통달하였다고 한다.⁷¹⁾ 심양에서는 1643년 세자를 수행하여 황제에게 나아갔다가, 暹羅國(태국)에서 명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가 청의 군병에게 붙잡혀 온 사람을 만나 漢語로 대화하며 그 나라의 사정과 방물 등을 알아보고, 관소 근처에 온 漢人 포로들을 만나 명 황제와 명조의 소식, 전투 상황 등을 탐지한 내용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⁷²⁾ 또 신계암과 함께 팔왕과 우진왕이 전투에서 회군한 소식을 탐문하기도 하였다.

張禮忠은 漢譯으로⁷³⁾ 인조 대에 명의 사신을 접대하는 역관으로 활동하였고,⁷⁴⁾ 모문룡의 군영에 파견되기도 하였다.⁷⁵⁾ 정묘호란 때 강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금 사신 劉海를 응대하여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곧 후금에 보낼 국왕의 답서에 후금의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생겼는데, 劉海가 그에게 은밀히 명나라의 揭帖에는 원래 연월을 쓰지 않으니 그 예를 따르면 ‘天啓’라는 글자를 쓰지 않게 된다고 알려주었다.⁷⁶⁾ 이에 따라 계첩 형식으로 국서를 써 보내는 것으로 해결하였다.⁷⁷⁾ 심양에서는 1638년 세자의 영에 따라 淸將 마부대에게 문병을 갔다가 청 황제에게 세자 책봉을 주청하라는 말을 듣고 와서 재신들과 상의한 뒤 다시 책봉 주청에 대한 문제들을 세세히 탐지한 일이 있었다.⁷⁸⁾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소현세자의 책봉을 청에 청하였다. 또 1640년에는 군량을 가지고 갔던 배가 난파된 상황을 청에 알리고⁷⁹⁾ 다시 칙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청에서는 난파되어 군량을 기일에 보내지 못한다 한 것은 속이고 꾸며댄 것이라며 비난하였다.⁸⁰⁾

崔泰慶은 1637년에 은자 300냥을 가지고 칙서를 대접하기 위한 양과 돼지

71) 『통문관지』 권7, 인물.

72) 『심양장계』 계미년 6월 22일.

73) 『통문관지』 권7, 인물.

74) 『인조실록』 권9, 3년 6월 신묘 ; 권12, 4년 5월 갑자.

75) 『인조실록』 권10, 3년 9월 기사.

76) 『인조실록』 권15, 5년 2월 무오.

77) 『인조실록』 권15, 5년 2월 기미.

78) 『심양장계』 무인년 12월 1일.

79) 『인조실록』 권40, 18년 3월 갑신.

80) 『인조실록』 권40, 18년 3월 병오.

등을 사가려고 심양에 왔다. 이 일에 대하여 청역 정명수 등과 상의하니, 칙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금지할 것이므로 난리 뒤라 조선에 가축이 없어서 번식시키고자 한다는 뜻으로 대답하게 하였다.⁸¹⁾ 병자호란 뒤 모든 것이 탕진된 조선의 상황에서 칙사 영접도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정명수의 말에 따라 그는 무사히 양과 돼지 등을 사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趙孝信은 1638년 소를 사기 위한 성익의 몽골행에 동행하였다. 1642년에 漢船 2척이 출몰했다는 의주부윤의 보고가 있자, 청은 조선이 명과 밀통하여 평안도에서 나포하지 못했다고 의심하면서 황제의 명으로 관원을 내보내 조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일에 조효신이 貳師 이경석을 수행하여 나갔다.⁸²⁾ 또 임경업을 붙잡아 보내지 못한 일 때문에 용골대 등이 나가 직접 조사하고 그를 잡지 못하면 은닉한 사람을 적발하고 임경업의 처자 족속 등을 모두 참살하라는 황명에 따라 용골대 등이 나가면서 이형장과 조효신을 데려 가겠다고 세자에게 청하였다. 이 행차에는 정명수와 팔기의 군인도 각 1명씩 나갔다.⁸³⁾

徐尙賢은 한역으로 1641년 금주위 전투에 종군하였는데, 금주에 파병된 군대의 군량을 구하는 일을 잘 해결하였다. 耿仲明이 伊州의 쌀을 금주의 군대로 운반해 주고 요동에 있는 쌀로 갚게 해주었다. 경중명은 靉島에 있을 때 조선왕의 후은을 입은 일을 잊지 못한다며 그렇게 해준 것이었다.⁸⁴⁾ 1642년에는 尙可喜와 孔有德이 해주에 둔 묵은 쌀을 빌려 쓰고 8월에 햇곡으로 갚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다.⁸⁵⁾ 경중명과 상가희·공유덕은 명의 장수들로 1633년 청에 투항하여 청에서 順王에 봉해졌는데 서상현은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듯하다. 그는 이때 군량을 조달한 일로 가자되었다.⁸⁶⁾

李信儉은 1638년 사은사행을 따라 심양에 왔는데, 조정에서 받아온 은자를 봉한 것을 뜯어 바뀌치기하는 농간을 부려 심문을 당하였다.⁸⁷⁾ 또 청에서 해마다 홍시와 배를 구하는데, 1641년에는 홍시를 맡아가지고 와서 탈없이 마쳐

81)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82) 『심양장계』 임오년(1642) 8월 28일.

83) 『심양장계』 임오년 윤11월 26일.

84) 『심양장계』 신사년(1641) 11월 9일.

85) 『심양장계』 임오년 정월 28일, 2월 22일.

86) 『심양장계』 계미년 4월 3일.

87) 『심양장계』 무인년 4월 21일.

서 상을 받고 나갔다.⁸⁸⁾ 1642년에는 심양관에 田地를 떼어주고 농사지어 식량을 해결하게 하였는데 농전을 정해 받는 일에 이형장과 함께 나갔다.⁸⁹⁾ 1643년에는 칙사 白牌를 이문에서 받아가지고 서울로 갔다.⁹⁰⁾ 그런데 이신검과 서상현은 심양에서 소현세자빈 강씨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1646년 姜嬪의 逆獄에 연루되어 형장을 맞다가 사망하였다.⁹¹⁾

金命吉은 1639년 청에서 熊島(熊島)의 胡人을 모아 투항하게 하는 일로 曰可胡 2명을 내보내는데 이들과 서로 알고 造山堡에 살아 응도의 형세를 익히 안다고 하여 용골대와 함께 황제의 명으로 나갔다.⁹²⁾ 또 재신 박로가 皮牌博氏와 懷恩君의 딸의 집에⁹³⁾ 가서 세자 책봉을 주청할지 알아보는데 김경신과 함께 통역을 하였다.⁹⁴⁾

김경신은 팔왕이 세자와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며 그를 불러 은밀히 문안하고, 채사 10필을 주며 세자와 대군에게 바치게 한 일이 있었다.⁹⁵⁾

崔得男은 의주의 賤隸 출신이다.⁹⁶⁾ 1637년 심양에 배종하기를 자원하자, 의주 사람이라 왕래에 익숙하므로 금군이라 칭하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⁹⁷⁾ 權管에 제수되었으나 그대로 배종하기를 청하였다.⁹⁸⁾ 한어도 가능하여 범문정이 와서 한역을 찾자 그가 응대하였다.⁹⁹⁾ 소현세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배를 구하자 그를 보내 의주부윤에게 구해오게 하였고¹⁰⁰⁾ 심양에서 몰래 장사하려 한 죄인을 조선으로 내보내는데 호송해 갔다.¹⁰¹⁾ 1640년에는 청의 요구에 따

88) 『심양장계』 신사년 11월 2일.

89) 『심양장계』 임오년 2월 22일.

90) 『심양장계』 계미년 9월 2일.

91) 『인조실록』 권49, 26년 윤3월 무자.

92) 『심양장계』 기묘년 1월 21일, 8월 24일

93) 懷恩君의 딸은 강화도에서 포로로 붙잡혀 청 태종에게 바쳐졌는데 뒤에 청 태종의 명으로 피패박씨의 처가 되었다(『연려실기술』 권25, 仁祖朝故事本末 殉節婦人 ; 『심양장계』 무인년 12월 23일).

94) 『심양장계』 경진년 1월 21일 두 번째 장계.

95) 『심양장계』 기묘년 6월 15일.

96) 『인조실록』 권46, 23년 8월 임인.

97) 『심양장계』 정축년 4월 13일.

98) 『심양장계』 정축년 5월 20일

99)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100) 『심양장계』 무인년 4월 26일.

라 평안병사 임경업에게 舟師를 이끌고 오는 일을 재촉하기 위해 博氏 2인과 함께 나갔다.¹⁰²⁾ 조선에서 보내는 쇄환인 44인을 데리고 들어오고¹⁰³⁾ 창주참사로서 서행에 쓸 잡물을 맡아가지고 들어오고¹⁰⁴⁾ 표류한 한인을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¹⁰⁵⁾ 1643년에는 봉황성에서 심양으로 돌아오는 길의 세자에게 심양관의 차사원으로 재신의 馳達을 전하기도 하였다.¹⁰⁶⁾ 그는 일찍부터 정명수와 친하였다고 하는데,¹⁰⁷⁾ 1647년 가을 정명수·이형장 등과 결탁하여 運迷差使員으로 米船을 거느리고 북경에 갔을 때 청에서 군인들에게 상으로 준 은을 훔쳐 차지한 일이 있었다. 뒤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정명수가 관대한 처분을 청하여 김류·이시백 등이 구원하려 했으나 인조가 물리쳤다.¹⁰⁸⁾

崔莫同은 청에 포로로 붙잡혀 오래 동안 팔왕 아지거(阿濟格)의 旗에 속하여 그와 절친하였다고 한다. 1640년 팔왕이 정명수와 최막동을 불러 임경업의 문제에 대하여 황명에 잘 따르라고 은밀히 조언하고 세자에게 아뢰게 한 일이 있었다.¹⁰⁹⁾

李馨長은 일찍부터 군관으로 후금을 오가며 호역으로 활동하여 후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¹¹⁰⁾ 1638년에 몽골에서 소를 사는 일에 동행하였다. 이형장은 근실하고 영리하여 사환에 절실하다며 심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한 기록도 보인다.¹¹¹⁾ 1640년에 청의 요구에 따라 임경업이 수군을 끌고 갔으나 명군과 전투를 회피한 일 때문에 청 태종의 추궁을 받을 때 의주에서 주선한 일로 통정의 품계에 오르고 1642년에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¹¹²⁾ 심양에 있으면서 용골대·정명수와 가까워져 1640년 무렵부터 정명수를 응대하는 역

101) 『심양장계』 무인년 2월 11일.

102) 『심양장계』 경진년 7월 6일.

103) 『심양장계』 신사년 3월 8일 세 번째 장계.

104) 『심양장계』 신사년 9월 25일.

105) 『심양장계』 임오년 2월 2일.

106) 『심양장계』 계미년 2월 2일.

107) 『인조실록』 권43, 20년 1월 무인 ; 권46, 23년 8월 임인.

108) 『인조실록』 권46, 23년 윤6월 병술.

109) 『심양장계』 경진년 7월 20일.

110) 『인조실록』 권20, 7년 3월 정묘.

111) 『심양장계』 무인년 9월 8일.

112) 『인조실록』 권41, 18년 12월 경오 및 권43, 20년 11월 을유.

할을 거의 전담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형장을 이용하여 이들의 의중을 탐지하려고 하였다. 1643년에는 청의 衙門에서 홍이포를 주조하기 위한 銅鐵의 구매를 요청하면서 이 일에 이형장을 지정해 보내게 하였다.¹¹³⁾ 1645년에는 청에 보내기로 했던 쌀 20만석에 대한 일을 칙사로 나온 정명수에게 줄여주도록 요청하여 반으로 줄인 일도 있었다.¹¹⁴⁾ 그는 1651년 김자점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상으로 심양에 있던 청역을 비롯한 역관들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들어 살펴보았다.¹¹⁵⁾ 당시 청에는 한인이 많고 범문정과 같은 한인 관료가 조선과의 관계에 역할을 하고 있어 한역도 필요하였다. 역관이 맡은 일 자체가 청의 아문이나 청인과 접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관들은 청측 역관과도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정보를 탐지하는 일도 그러한 개인적 친분 속에서 이루어졌다. 때로는 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들을 불러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청의 명령에 따라 군병을 보내 참전했을 때 군령 전달을 위해 조선 역관을 八旗에 각각 보내게 한 것이나, 조선에 사신을 보내고 교역하는 등 경제적 문제에도 팔기에서 각각 家丁을 보내 참여한 것은 팔기제를 기반으로 한 청의 사회 운영과 관련된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4. 청측 역관과 鄭命壽

청에서 조선과 심양관에 관한 일은 6부 가운데 예부와 호부에서 담당하였다. 衙門의 명령을 전달하고, 조선에 관계된 일은 衙門譯官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동관에 구치하고 검색한 뒤 심양관으로 가게 하였다. 조선에서 바친 세폐와 방물 등도 아문의 차비 역관들에게 물건을 살피고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 청 황제와 아문의 명령과 요구를 조선측에 전달하고 諸王과 용골대·마부대 등의 개인적인 요청을 은

113) 『심양장계』 계미년 12월 14일.

114) 『인조실록』 권46, 23년 2월 계유.

115) 그밖에 張炫이 1637년 소헌세자를 배종하여 심양에 가서 6년 동안 머물렀다고 전하는데(『통문관지』 권7, 인물), 『심양일기』와 『심양장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밀히 전하기도 하였다. 청의 아문역관으로 대표적 인물이 정명수이다. 그와 함께 청나라측 역관으로 판정되는 이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청의 아문역관

연도	역관 이름
1637	金汝翎 金丕屎 鄭命壽
1638	정명수 김돌시 河士男
1639	정명수 김돌시 金愛守 韓甫龍 尹愛龍
1640	정명수 卞難 朴丕屎 李齡(芴)石
1641	정명수 李論先 하사남 김산 양경인 한거원 한보룡 이엇석
1642	정명수 金應立 李內口
1643	정명수 변난 한거원 이엇석 허득립 최기립 박돌시 文敏金 김응립
1644	정명수 한보룡 변난 김응립 박돌시 李士龍

<표 2>에서 이들의 이름을 보면 거의 조선인 출신으로 생각된다. 정명수는 殷山의 賤隸 출신으로¹¹⁶⁾ 김돌시는 碧潼 또는 穩城 출신으로 전한다.¹¹⁷⁾ 청측 청역들도 여진과 접경지역에 살았거나 청의 포로가 되어 만주어를 익혔을 것이다. 조선측 청역 가운데 속환인들이 다수 있었던 것처럼 아문역관도 여진 向化人 출신이거나 만주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찾아지지 않는다.

청의 아문역관 경우도 정확한 인원이나 구성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다. 팔기제로 운영되고 조선과 관련된 일에도 팔기에서 각각 사람을 파견했던 점을 보면 아문역관도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을까 한다. 1643년에 9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정명수가 호부관원으로서¹¹⁸⁾ 줄곧 조선에 관계된 대부분의 일에 끼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문역관은 팔기에서 보낸 8명과 함께 9명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역할을 몇 가지 들어보면, 해마다 가을에 조선에서 들어오는 홍시와 배를 운반해 오기 위해 김돌시가 인마를 끌고 의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116) 『인조실록』 권34, 15년 2월 계유.

117) 『丙子錄』 정축년 정월 초1일.

118) 『통문관지』 사대하 칙사 대통관. 정명수는 통관으로서 호부의 主事를 겸하였다 고 한다.

청의 장수 만월개는 河土男을 시켜 자신의 뜻을 몇 차례 심양관에 전한 일이 있었다. 1638년에 하사남을 통해 은밀히 전하기를 ‘강화도 함락 시에 빈궁, 대군과 궁인들을 구호하여 무사히 도강하게 해주었고, 자신도 예부에 있으면서 조선에 관계되는 일이면 힘써 주선하였는데 龍骨大·馬夫大 두 사람만 알고 자신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표하면서 앞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갈 일도 있으리라고 하였다. 이에 소현세자는 은 1백냥을 보내 정을 표시하였다.¹¹⁹⁾

이제 鄭命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이름은 命守 또는 命水로도 나타나며, 만주어 이름은 孤兒馬紅이다.¹²⁰⁾ 역관이었을 때는 ‘鄭譯’으로, 후일 칙사가 되었을 때는 ‘鄭使’로 표기되어 기록에 자주 나타난다.

그는 평안도 은산의 賤隸 출신으로 1627년 정묘호란 때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가서 조선의 사정을 고해 바쳐 汗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¹²¹⁾ 1633년부터 후금이 조선과 교섭하고 물품을 교역하는 데 통역과 차사의 임무를 맡았다.¹²²⁾ 1634년에는 비단과 彩色, 약재 등 물품 교역을 요구하는 차사와 함께 들어와 『삼국지』·『춘추』등 책과 필목을 구하기도 하였다.¹²³⁾ 병자호란 무렵부터 정명수는 용골대·마부대와 함께 조선에 자주 드나들었다. 청과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호역 이신검이 정명수에게 뇌물을 주면 강화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자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은 3천냥, 정명수에게 1천냥을 주기도 하였다.¹²⁴⁾

이후로 조선과 청 사이의 거의 모든 일은 조선의 일을 전담하였던 용골대·마부대와 함께 역관 정명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청의 요구를 조선에 전달하고 양국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선을 추궁하고 독촉하였다. 명을 공략하는 전쟁에 조선의 군병을 징발하고 군량미를 조달하여 운

119) 『심양장계』 1638년 12월 1일.

120) 『심양장계』 계미년 9월 2일 ; 『인조실록』 권46, 23년 윤6월 갑신.

121) 『인조실록』 권34, 15년 2월 계유. 『연려실기술』 제26권 인조조고사본말 鄭雷卿條에도 정명수는 본래 殷山縣의 官奴로 정묘년(1627)에 포로가 되어 심양에 들어갔고 정축년(1637) 이후 통역과 사신으로 왕래했다고 전한다.

122) 『인조실록』 권28, 11년 10월 신사.

123) 『인조실록』 권30, 12년 12월 신해.

124) 『인조실록』 권34, 15년 1월 계축.

송하는 일, 漢船이 서해상에 출몰하고 조선이 명과 비밀리에 교섭하는 일에 대한 추궁, 向化人·逃漢人·走回人의 쇄환을 독촉하는 일, 被擄人의 속환, 그리고 화약 조건에 따라 세폐와 공물, 여색을 바치는 일 등에 대하여 청 황제의 명과 용골대와 아문의 뜻을 심양관에 전달하였다. 조선에 대한 청의 태도가 위압적이었고 군병과 물자 징발 요구도 많았던 만큼 정명수의 위세도 높았다.

황제와 제왕, 용골대 마부대의 개인적 요구도 정명수를 통해 심양관에 전해졌다. 용골대는 피로인을 고가에 속환할 것을 요구한 일이 수차 있었다. 당시 청나라의 법으로는 공연히 은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속환 명목으로 욕심을 채운 것이었다.¹²⁵⁾ 또 집안의 혼사나 장례에 부물을 보내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황제가 약으로 쓸 생강이나 竹瀝, 靑竹 등을 급히 구한 일이 몇 번 있었고¹²⁶⁾ 구왕 도르곤(多爾袞)도 고질병에 쓸 죽력을 은밀히 구해 달라 요구하기도 하였다.¹²⁷⁾ 정명수는 이러한 요구들을 전하며 자신의 욕심을 함께 챙기기도 하였다.

정명수가 임금을 모독하고 조선 관료들을 업신여기며 횡포를 부리자 1639년 세자시강원 필선 鄭雷卿이 조선에서 바친 은자와 배, 감 등 세폐 물품을 정명수와 김돌시가 몰래 횡령했다는 혐의로 청으로 하여금 처단하도록 꾀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결국 근거 없는 모함으로 몰려 정뇌경은 처형당하고 이 후로는 청역들이 일마다 말썽을 일으켰다고 전한다.¹²⁸⁾

그런데 조선에서도 정명수를 통하여 청조의 동향에 대하여 탐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에 나갈 칙사로 차정된 인물과 수행원 규모, 그 임무에 대하여 미리 알아내 대처하고자 하였다.¹²⁹⁾ 화약 조건에 따라 양국 간의 혼인 문제가 제기되고¹³⁰⁾ 여색을 명조의 예에 따라 바쳐야 한다는 청의 요구에 기생과 관비 등을 선발하여 보냈는데 청측에서 이것을 문제 삼자 정명수로 하여금 조선의 실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게 하였다.¹³¹⁾ 여자를 바치는 문제는 청 태종의

125) 『심양장계』 경진년 5월 16일, 신사년 8월 4일.

126) 『심양장계』 경진년 9월 16일, 임오년 3월 3일 등.

127) 『심양장계』 계미년 9월 6일.

128) 『심양장계』 기묘년 1월 28일.

129) 『심양장계』 기묘년 5월 18일.

130) 『심양장계』 무인년 3월 18일.

131) 『심양장계』 무인년 9월 3일.

명으로 곧 폐지되었다.

정명수를 통하여 쉽게 풀어간 문제들도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1637년 최태경이 양과 돼지를 사는 일로 들어와서는 그와 상의하고 그 말에 따라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갔다. 정명수는 속환 문제는 사신이 용골대에게 얘기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가만히 말해주기도 하고¹³²⁾ 칙사 차정과 수행원의 수,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와 세자 책봉 문제도 은밀히 알려 주어 미리 대처하게 하였다.¹³³⁾ 또 1640년 군병 징발과 조선으로 도망친 漢人을 수색하는 문제 등으로 청에서 용골대 등을 의주에 파견하여 비밀리에 조사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도 비밀리에 알려주었다. 심양관에서 청의 관원들이 불시에 나가면 접대에 어려움이 있음을 용골대에게 설명해주도록 부탁하고 이를 조선에 치계하여 대비하게 한 일도 있었다.¹³⁴⁾ 큰 문제가 되었던 임경업의 일도 그와 상의하고, 교체 군병의 일에 정명수가 본국의 일에 힘을 다하여 주선했다고 장계한 일도 있다.¹³⁵⁾ 1642년에는 청에 바칠 쌀을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하자 그가 쌀의 수량을 알려주면 아문에서 인마를 정해 보낼 것이라고 하여 해결해주었다.¹³⁶⁾

조선의 고위 관료들도 정명수에게 개인적인 일을 청하여 뜻을 이룬 예도 있었다. 도체찰사였던 김류는 병자호란에 포로가 된 자신의 庶女를 용골대·마부대와 정명수에게 청하여 천금으로 속환하려고 했다.¹³⁷⁾ 이 일은 피로인의 贖價를 높여 놓아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 또 1639년에는 영의정 최명길의 질자 최후량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귀국할 수 있도록 용골대에게 알려 귀국하게 해주었다.¹³⁸⁾

그러나 정명수의 횡포도 많았다. 처음 후금 차사와 함께 胡譯으로 들어왔을 때, 이전에 자신에게 곤장을 치게 했다고 하여 평산현감을 관아에서 모욕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에 대해 비국에서는 용골대가 거느리고 왔고 朴仲男과 같은

132) 『심양장계』 기묘년 1월 9일.

133) 『심양장계』 기묘년 5월 18일.

134) 『심양장계』 경진년 10월 13일.

135) 『심양장계』 신사년 7월 7일, 7월 24일.

136) 『심양장계』 임오년 4월 28일.

137) 『병자록』 정축년 2월 초3일.

138) 『심양장계』 1639년 3월 20일.

부류라 형세상 벌을 줄 수 없으니 回移로 처리하자고 하였다.¹³⁹⁾ 조선이 청에 항복한 뒤 소헌세자가 인질로 심양으로 떠나는 길을 정명수는 마구 화를 내며 모욕적으로 재촉하였다.¹⁴⁰⁾ 청의 사신으로 들어오면서 연로 여러 고을에 물품을 요구하고 房妓를 바칠 것을 요구하였는데 기생들이 죽음으로 항거한 일도 있었다.¹⁴¹⁾ 방기의 폐단을 금지한 일로 병조좌랑 변호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¹⁴²⁾

조선은 정명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이 있으면 그와 친한 청역들을 보내 그의 의중을 살피게 하였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은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가 주선하여 성사된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포상하고 관직을 제수하였다. 1629년에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그 어미에게 月料를 지급하게 하였다.¹⁴³⁾ 1642년 척화신으로 심양에 압송되었던 김상헌과 박황·신득연 등 5인을 석방하여 의주로 내보낸 일에 그가 자신의 공임을 과시하는 기색을 보이자 備局에서 한 자급을 가할 것을 청하여 正憲에 가자하였다.¹⁴⁴⁾ 1648년에는 영중추부사를 제수하였다.¹⁴⁵⁾

또 정명수의 모친이 사망하자 정부인을 추증하였고¹⁴⁶⁾ 그의 족속에게도 그의 청에 따라 관직을 내리고 승급시켜 주었다. 처남 奉永雲은 西路의 변장에 제수되었으나 定州 관노였던 그는 관직을 사양하였고¹⁴⁷⁾ 다시 정명수의 청으로 寧遠郡守, 순천군수 등에 제수하였으나 굳게 사양하였다.¹⁴⁸⁾ 정명수의 누이의 아들로¹⁴⁹⁾ 본디 은산의 貢生이던¹⁵⁰⁾ 李玉連 역시 그의 청에 따라 水口萬戶

139) 『인조실록』 권28, 11년 10월 신사.

朴仲男은 鏡城 출신으로 후금에 투항한 뒤 胡差로서 조선을 오가며 활동하였다 (『인조실록』 권18, 6년 6월 경술 ; 『연려실기술』 권25, 인조조고사본말 丁卯虜亂 참조).

140) 『인조실록』 권34, 15년 2월 을해.

141) 『인조실록』 권35, 15년 11월 임신.

142) 『인조실록』 권39, 17년 12월 갑신.

143) 『인조실록』 권39 17년 7월 병진 ; 권41, 18년 12월 계축.

144) 『인조실록』 권43, 20년 1월 경진.

145) 『인조실록』 권49, 26년 3월 임인.

146) 『인조실록』 권42, 19년 7월 기묘.

147) 『인조실록』 권38, 17년 6월 갑인 ; 권39, 17년 8월 신묘.

148) 『인조실록』 권43, 20년 윤11월 무신, 12월 갑신 ; 권44, 21년 5월 계축.

149) 『인조실록』 권44, 21년 12월 을해.

와 문화현령을 거쳐 순천군수가 되었다.¹⁵¹⁾ 정명수의 양자 鄭善은 사도시주부가 되었다.¹⁵²⁾ 정명수의 매부 林復昌은 成川의 正兵이었는데 군역을 면제받았다.¹⁵³⁾ 정명수의 조카 또는 성이 다른 사촌 아우로 나오는 張繼禹는 方山萬戶에 제수되었다가¹⁵⁴⁾ 정명수가 칙사로 왔던 1649년 1월 은산에 있는 부모의 묘를 돌볼 수 있게 가까운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에 따라 老江僉使에 임명되었다. 동생 아우의 사위인 金鉉은 박천 교생이었는데 방산만호에 임명되었다.¹⁵⁵⁾ 이들 정명수의 족속은 1653년(효종 4) 정명수가 청에서 처벌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두 남쪽 변방으로 옮겨졌다가 원래의 처지로 되돌려졌다.¹⁵⁶⁾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정명수의 말에 따라 관료가 교체되고 사신 선정이 바뀌었다. 1641년 시장원의 보덕 황감은 그의 미움을 받아 체직되었고¹⁵⁷⁾ 문학 申翊全 역시 정명수에게 미움을 받았다 하여 상소하고 체직을 청하여 교체되었다.¹⁵⁸⁾ 1644년 청에 보내는 사은사를 정하는데 정명수는 三公原任 중에서 차임할 것을 청하여¹⁵⁹⁾ 교체시켰다. 또 1645년에 사신으로 조선에 오다가 원접사가 金堉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친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성내는 바람에 이형장 등을 시켜 타일러 화해하게 하였다.¹⁶⁰⁾ 정명수에게 빌붙어 횡포를 부린 의주의 역관에게 곤장을 친 일이 있었던 호조판서 민성휘는 사신 접대를 맡게 되자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체직을 청하여 교체되었다. 이 소문을 듣고 정명수는 ‘호조판서는 국가의 중임인데 어찌 지간 하찮은 일로 갑자기 체직시켰단 말인가’라고 비웃었다.¹⁶¹⁾ 또 청으로 돌아

150) 『인조실록』 권46, 23년 11월 무진. 이옥련은 정명수의 세력을 믿고 교만하여 사 람들이 미워하였고, 순천군수로 있을 때 숙천 관비였던 四生이 그의 첩이 되었다가 그를 살해하였다고 한다.

151) 『인조실록』 권42, 19년 11월 임오 ; 권43, 20년 12월 19일 갑신 ; 권46, 23년 2 월 계미.

152) 『인조실록』 권48, 25년 10월 임신.

153) 『인조실록』 권39, 17년 7월 병진.

154) 『인조실록』 권49, 26년 3월 임신.

155) 『인조실록』 권50, 27년 1월 병술.

156) 『효종실록』 권10, 4년 6월 정유 ; 권11, 7월 병인.

157) 『인조실록』 권42, 19년 3월 계미.

158) 『인조실록』 권42, 19년 3월 경자.

159) 『인조실록』 권45, 22년 4월 병술.

160) 『인조실록』 권46, 23년 1월 임자.

가는 길에 안주에 당도하였는데 미처 영접하지 못한 餞慰使 李挺漢 등을 끌어내 모욕을 주었고 자신이 싫어하는 평안감사 李曼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다.¹⁶²⁾ 영의정 김류는 ‘鄭譯은 성질이 반복무상하고 불측하여 국가의 안위가 모두 이 사람의 희로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⁶³⁾

정명수는 1643년에 대통관의 지위에 올랐다. 심양에서는 정명수가 승직하여 二使(부사)의 아래 1등 두목 위의 대통관이 되었으므로 조선에 나가면 그에게 비밀리에 예단을 보낼 것을 통지하였다.¹⁶⁴⁾ 그는 다시 칙사의 지위에 올랐다. 『통문관지』에는 ‘정명수가 通官으로서 戶部主事を 겸임하여 칙서에 이름을 올리고, 副使를 맡거나, 혹은 三使, 四使를 맡아서 제 마음대로 威福을 자행하였다’고 전한다.¹⁶⁵⁾ 1645년 소현세자가 귀국하여 급서한 뒤 세자가 되었던 효종은 해마다 병중의 인조를 대신하여 칙사 정명수를 맞아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극진히 해야 했다.¹⁶⁶⁾

그러나 1643년 청 태종의 사후 順治帝를 옹립하고 섭정왕이 되었던 九王 도르곤이 사망하였다. 이후 순치제가 구왕의 세력을 억누르고 친정을 강화하면서 1653년 정명수도 숙청되었다.

그밖에 金芻屎가 있다. 그는 1639년 자신의 족속에게 벼슬을 주기를 청하여 종제를 수문장으로 임용되게 하였다.¹⁶⁷⁾ 칙사행에 역관으로 나와서 연로 여러 고을에서 각종 기물과 역마를 빼앗는 횡포를 부리고, 정명수는 동지부사의 고신첩을 얻어 기뻐하나 김돌시는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¹⁶⁸⁾ 그는 칙사행에 다녀온 뒤 1640년 사망하였다.

161) 『인조실록』 권46, 23년 11월 임신.

162) 『인조실록』 권48, 25년 9월 무신.

163) 『인조실록』 권28, 11년 10월 신사.

164) 『심양장계』 계미년 3월 2일.

165) 『통문관지』 사대하 칙사행차 大通官.

166) 정명수가 칙사의 한 사람으로 조선에 왔을 때 효종이 세자로서 宴禮를 베풀고 극진히 접대하며 대화한 내용이 『효종동궁일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남아 있다 (『효종동궁일기』 <奎 12828>, 정해년 3월 3일·13일, 10월 4일·17일; 무자년 3월 6일·8일·12일의 說話 등 참조).

167) 『인조실록』 권38, 17년 6월 갑인; 권39, 7월 병진.

168) 『인조실록』 권39, 17년 7월 을해.

정명수 이후로 아문역관 출신으로 大通官이 된 韓巨源와 韓甫龍이 있다. 한거원은 본래 昌城 출신이라고 한다. 1643년에 이경여 등 5신과 김상헌을 용골대가 심문할 때 아문역관으로서 수행하였고¹⁶⁹⁾ 1645년 봉림대군이 청에서 귀국할 때 호행장 호부낭중 亞赤 등과 함께 역관으로 서울에 들어왔다. 1646년부터는 칙사행에 대통관이 되었다.¹⁷⁰⁾ 그 뒤 사은사 홍주원 등이 청에 가서 그곳 사정을 한거원에게 탐문한 일이 있다.¹⁷¹⁾ 1654년 청의 차사로서 서울에 들어와 나선 정벌에 징병하는 내용의 자문을 바쳤는데, 이때 효종은 나선이 어떤 나라인지, 황제의 나이와 북경의 군병이 정예한지 등을 그에게 물었다.¹⁷²⁾ 한보룡도 1647년과 1651년 칙사행의 대통관으로 조선에 온 일이 있다.¹⁷³⁾

그런데 『심양일기』와 『심양장계』를 읽다 보면 조청관계에서 조선측 역관에 비하여 정명수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청에서 조선인 출신을 역관으로 활용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정뇌경이 정명수와 김돌시를 횡령 혐의로 청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도모하다 오히려 처형당한 사건은 청측에서 이들 곧 조선인 출신 청역들을 보호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에서는 자국인이 된 이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조선을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당시는 청이 上國으로서 조선을 강하게 압박하던 시기이므로 이들의 위세는 등등하였다. 조선은 이런 사정을 감수하면서 이들을 통해 정보를 탐지하고 대청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였다. 또 이것은 仁祖가 병자호란 이후 청의 압박에 순응하면서 친청과 공신을 중용하고 권위를 강화했던 정치상황과도 관련될 것이다.¹⁷⁴⁾

5. 맺음말

병자호란으로 1637년초 조선이 청에 굴복하고 1644년 청이 入關하기 전까

169) 『인조실록』 권44, 21년 2월 을해.

170) 『인조실록』 권47, 24년 1월 무오 ; 권50, 27년 1월 임오.

171) 『효종실록』 권11, 4년 11월 임술.

172) 『효종실록』 권12, 5년 2월 계해, 병인.

173) 『인조실록』 권48, 25년 10월 임진 ; 『효종실록』 권6, 2년 3월 계사.

174) 한명기, 2003,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파장 : 청의 조선 압박과 仁祖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19, 53-90면 참조.

지 기간은 사대관계로 바뀐 초기로, 청이 명을 공략하면서 강하게 조선을 압박하였다. 청에 굴복하였으나 중화로 섬겼던 명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은 조선에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때에 조선과 청 사이에서 역할을 맡았던 역관의 존재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주로 『심양장계』와 『심양일기』라는 동시대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청역을 비롯한 역관들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단편적이거나 역관에 관계된 기록들을 모아 비교 검토하면서 심양에 있던 조선 역관과 청 아문역관의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淸譯’이란 만주어 통역으로 조선 역관과 청측 역관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조선이 청과 사대관계를 맺고 청의 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청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17세기초 청에서는 여진어를 滿洲語라고 하고, 그 문자도 몽골문자를 빌어 표기하는 방식의 有圈點滿洲字가 1632년 완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역학자 申繼黯이 심양을 오가며 만주어와 유권점만주어를 배워 淸學 교재를 새로 마련하였다. 또 이전의 女眞學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被擄人이었다가 속환된 사람들이 청역으로 임용되었다.

이때 심양에는 소현세사가 볼모살이를 하고 있었고 빈번한 사신 파견과 청의 갖가지 명령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많은 역관이 있어야 했다. 淸譯뿐 아니라 漢譯도 필요하였는데 조선의 일을 전담한 龍骨大·馬夫大 외에도 范文程이나 耿仲明·孔有德 등과 같이 청조에 등용된 한인도 응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만주족의 八旗制에 기반을 둔 사회운영에 따라 군병 파견이나 칙사의 수행원 구성, 교역 등에 팔기에서 각각 家丁을 파견하므로 조선측도 이에 맞추어 다수의 역관을 보내야 했다.

청측 衙門譯官도 조선인 출신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鄭命壽였다. 정명수는 은산의 賤隸 출신으로 정묘호란 때 포로가 되어 후금에 들어가 만주어를 배우고 역관이 되었다. 조선에 관계된 일은 거의 대부분 그를 거쳐 조선측에 전달되었다. 그는 청의 위세를 업고 횡포를 부리는 일도 많았다. 조선에서는 뇌물을 주고 관직을 제수하면서 그를 통해 청의 사정을 탐지하고 청의 명령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는 대통관에서 칙사로까지 승진하였으나

구왕 도르곤 세력의 몰락과 함께 처형되었다.

淸譯에 대하여는 대체로 간사하고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는 등 부정적 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들을 회유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 양국관계에서 청역의 역할은 청측 역관 정명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청이 절대 강자로서 위압적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주도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로 볼 수 있다. 곧 이 시기 조선이 청과 맺은 사대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1637~1644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중심으로 역관의 존재를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전부터 胡譯으로 활동한 이들이 청역이 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16세기 말부터 건주여진의 흥기와 함께 조선의 대후금 관계에서 역할을 하였던 胡譯의 존재에 대하여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역의 역할은 조선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또 1644년 이후 청이 중원 지배를 확립해가면서 그에 따라 변화되는 조청관계에서 청역의 역할도 비교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譯學은 만주를 중심으로 몽골·티벳·한족을 포괄하는 ‘대청’ 제국체제 속의 외교 문화적 교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 淸譯, 조청관계, 譯官, 淸學, 瀋陽, 申繼黯, 鄭命壽

투고일(2007.11.7), 심사시작일(2007.11.7), 심사종료일(2007.12.1)

<Abstract>

The Manchu language interpreters in the Joseon-Cheong(朝淸) relationship, after the Byeongja Horan(1637~1644)

Kim, Nam-yun *

In this article, the existence and role of the so-called 'Cheongyeok(淸譯)' are examined. Since the end of the Byeongja Horan, for 8 years(1637~1644) Cheong Dynasty engaged Meong Dynasty troops, and in the process Cheong ordered huge amount of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from Joseon. In such times, the role of the interpreters was critical, to say the least.

The term 'Cheongyeok' referred to all the entities engaged in interpreting tasks, including interpreters on both the Joseon side and the Cheong side, and that was because in most cases the interpreters on the Cheong side were Joseon people as well. At the time, Joseon decided to officially serve Cheong, and acknowledge the Manchu language. At the time the study of interpretation of the Manchu language referred to as 'Cheonghak(淸學)'. The books for Cheonghak was written by Shin Kye-am(申繼黯), he was newly learned the Manchu language and script in Shimyang(瀋陽).

During this time, the Crown prince Sohyeon(昭顯世子) of Joseon was held in Shimyang as a hostage. And Joseon was obliged to comply with the requests made by the Cheong dynasty, the Great country. So, a lot of interpreters are active in Shimyang.

Yet the interpreters from Cheong played a much bigger role in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mong them Jeong Myeong-Su (鄭命壽) was the most famous. Most of the issues or communications regarding Joseon was relayed through him. Dealing with Joseon, he abused his power given to him by Cheong. And Joseon offered him bribery and governmental seats, in order to examine the Cheong situation and be prepared for any future requests. Such events were inevitable when Cheong was threatening and coercing Joseon.

Key Words : Cheongyeok(清譯, Manchu language interpreter), Cheonghak (清學, the study of interpretation of Manchu language), the Joseon-Cheong relationship(朝清 관계), Shimyang(瀋陽), Shin Kye-am(申繼黯), Jeong Myeong-Su(鄭命壽)